



戰車를 燒爍 (세二〇四시사) 하여야 하겠고 또 그뿐 아니라  
 第一노 사람들의 心性을 變化改造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야 엎더 케 사람의 心性을 變化改造할 수 있  
 습니까? 그런즉 그 일을 할 수 있게 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能  
 히 戰爭을 此地面에서 止熄 (九하반 전쟁) 케 할者가 도모지 입소  
 이다. 그런 故로 地主 計劃를 하는者는 이 奧義를 아지 못하는者  
 지고 그 運動과 計劃를 하는者는 이 奥義를 아지 못하는者  
 로서 보기에는 가장 偉大한 運動과 計劃가지만은  
 實狀은 그 사람이 代理로 하나님 노릇하라는 크게 危險  
 하니 妄僞된 일이 올시다. 이러한 所以로 하나님께서 사  
 람들이 참말, 싸움을 足히 防止할 듯 할 만한 더 國婚과 和  
 平殿의 絶妙한 計劃를 뒤집어서 도로 허대들의 올모가되  
 세하사 自相敗亡케 하셨으니 그것은 곳 사람들이 代理  
 의 神도 뜻하라는 傲慢의 罪愆이 올시다.

六、饑饉 時代의 일이니, 이 凶年도亦是 不順從하는者들을  
 黑馬時代의 일이니, 이 흉년도亦是 不順從하는者들을  
 警責하시는 神의 德鞭이 외다 (申廿八〇十五)。 大槩黑色  
 은 體魄의 色인며, 더 饑饉을 次持한 天使가 그 손에 天秤

即 저울을 들고 나온은 此時即末世에 饑饉이 太甚함으로  
 두구먼지 먹고 덜 먹는 일이 업시 푸짐한 水、火、風、蟲、獸의 災로 因하야 作됨과  
 하 分配할 뜻을 보임이외다. 이에 饑饉의 原因을 말하자  
 면 푸짐한 수박 풍 등 재인 풍작 등이 원인인  
 九神 五水、七風、蟲、獸의 災로 因하야 作됨과  
 又以上戰爭으로 因하야 丁男은 太半戰死하고 寡婦 (九〇  
 신分종 빛게 업습으로 農事지을者가 적음이오 又人生들이  
 神 읊順從치 아니하는罪愆으로 土地가 韶呪를 빛음 (창  
 ○十 六) 으로 因함이외다. 이러케 말하면 或者는 말하  
 기를 一凡庶事의 因應은兩澤如何와 各種災殃如何의  
 계이지 무상 罪債關係가잇드리 오 할던지 모르나 申命  
 악사람 절경 절경 절경 절경 절경  
 記廿八章 二節과 三節과 五節과 二十二節과 一章六節과  
 十節과 二十一節을 보면明白하외다. 大抵하나님께서  
 惡의人們을 채찍질하심에는 戰爭보다 饑饉이 更毒함으로  
 種수이것으로 戰鞭을 삼아 짜리 신일이 있슴니다. 饑饉이  
 엊지 하야 戰爭보다 青하나하면 大槩食物이라는 것은 人  
 生의 가장 큰 依賴物인 故이 올시다. 그럼으로 하나님께서  
 當身을 当敵하는 이스라엘族을 向하사 「내가 饑饉의  
 矢路 (中) 노씨 너희가 依頼하는 나보다 더 食物파校  
 물처

여겼다」(譯) (四五〇)

하섯습니다。且食物을 저울도 달

此主義야 말 노 基督敎의 產物이라고 하지만은 그는 꽃 꾼

이상임이 말

아서먹이 심은 以上에 已陳합파갓치 다만 그本丸分配

에 諸君分派

리차료설 대여사도시대 공산 부자

의 意味뿐 아니라 邑寧(日)을 칠예에 利廿六章廿六節에 「내가 너희의 杖

장점 절행이 일반부지 행정이 满腔의 사랑과同情으로一般富者를 向하사 이 봄을 아

제을노 달아서먹으되 배부드지 못하리라」

하심파갓치

너희혼자만 먹고 살겠나니 우리와갓치먹고 갓치살자하

僅々히 延命이나 하리 만큼 式外에는 주지 아니할 것과 또

는 惡主義인즉 이는 꽃 하나님께서 祝福하시 죽복 부인 成立식이

넷날 陳牛이고 기난호듯이 此時의 事況이 금일사회주위자 할수업시

설리가 만무(萬無)하외다. 내가 이 주의 부인 成立식이

방뿐 아니라 「飲料水外지조 금씩 平均하게 量器로 써되어

교 以는 다만 이뿐이외다. 나로 말하면 어서共產主義가

역전설(방사)의建設과 做似하게 平均分配 가 될것이외다. 그럼으로此

성립 成立되었스면 하는나을시다. 웨 그러나하면 나는 남의

때에 쌍의 貴하기가 天來의 만니」 띠과갓출 同時에 그 난

성을 엊으면 엊지 내것남의 기술 것은 업스닛가 나는 決

호와 먹는 法도 亦是 넷날 모세가曠野에서 이스라엘人의게

내것남주 기기술해서 反對或은 否認하는 것이 아니닛가을

오멜(量器) 노처 만니를 되어서 만히 거둔者도 만히 먹

시다. 이에 對하야 질게 말할 問題가 아니닛까 그만해두고

지 못하고 뜨한 적게 거둔者 도 적게 먹지 아니

다시 땅을 다라서 먹이시는 일에 對하야 한마에 먹하고 저

하세하듯 할것이다. 엇던이는 이 天秤時代를 現在

발하시는 뜻이 올시다. 보시오 現今監獄에서 罪人를의

의 共產、社會兩主義의 成立時代라고 하는이도 있슴으로

기밥을 다라서 먹이지 아니합닛가 그와갓치 하나님께서

엇먼술 닉은 所謂基督教敎人 들의 現時代의 風潮들 열너막

倘次大監獄 갓 혼이 價上罪人를의게 天秤으로 땅을 다라

수노라고 共產主義는 使徒行傳二章에서 비롯하였는즉

서먹이실 날이 반드시 있습례인데 금일이 못그때가 되여

가는 中의 하루 하루 —— 日이 올 시다. 보시오  
現今一切의 物質買賣 물질매수

시대가一步二步로더니一步二步로더니  
여나아가는途由인것을 誰다처울노다라서하는것이무삼일이오낫까。이는곳이  
도중 철정시체 향자비  
여나아가는途由인것을 時代를向하야 滋味있세거  
그런데 우

주력 (근일우리조선의 농촌문예) 하는 그 서술이 바루將次  
수전녀便不毛의 胡地와 이리비아의 大沙漠에 가  
천봉모호미  
種을하고 더 지상의 銀河水를 오리내며 내가 滉溉하고  
거기다가 더 하나의 腹料를 얹어야 天下로 하여 품 오  
대동안금주려서 자쪽을 거주고 있던 그 腹鼓를 치며 經  
제상자유정동 노래교장  
률이 자작제조 高唱케 할 듯하지만 우하나 넘쳐서 더  
감옥에서 봐인 취급 漢江에 서 물을 取扱하는 통일 同一의  
방법으로써 그 밤을 달아서 먹이 실날이 一步二步 우  
인생 목전 점차 漸々 닉처오는 中에 있습니다.

一  
（完）

(付言) 근자 과학 물이 或은 農理 土地改良法을 研究하여 대고 마중 植栽 수확 異기 播種、灌漑、收穫等의 耕械을 안드려 대고 或是 甚至於 공중 灷재 일상 질소 가리 등 비료 俗稱에 대 空中에 散在하니 燐酸、空素、加里等의 肥料를 摄取製改하 야 상회 회사 설립 開設 상회 회사 설립 開設 야 商會와 會社를 設立하고 百方으로 각其 伎倆을 다하 하나님으로 머보며 내기 하루시 種業에 繳하야
---

